

성모 승천 대축일

기도서 503 면
 제 1 독서 : 루카 11, 19a ; 12, 1-6a, 10ab
 제 2 독서 : 1고린 15, 20-26
 복 음 : 루가 1, 39-56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 3201

□ 강론



구원된 인간의 전형인 마리아 소 순 형 신부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으신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모친의 태중에 잉태되실 때부터 죄의 티끌 하나 없이 순결하신 분으로 잉태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잉태를 마리아께 알리실 때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는 1854년에 신앙의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4년이 지나 성모님께서 루르드에서 발현하셨을 때 “나는 원죄없이 잉태된 자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교황께서 선포하신 신덕도리를 입증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이 원죄없으신 잉태 특전은 그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은혜의 기본이 됩니다.

그로부터 96년 후, 1950년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또다시 성모님의 몽소승천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몽소승천이란 성모님께서 이 지상생활을 마치시자 곧 바로 육신을 치니신체 하느님 나라로 올림을 받으셨다는 교리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마리아가 이런 큰 은혜를 받으신 것은 마리아께서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뜻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모 몽소승천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에와가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작업이었다면 인간구원 역시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둘째 에와인 마리아의 공동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답으로 예수께서는 부활이, 성모께서는 승천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모님은 구원된 인간의 전형적인 본보기이십니다. 그분의 승천은 단지 그분 개인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세상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을 마리아를 통해 앞당겨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모님의 승천은 종말적 사건의 완성이고, 구원된 인간의 전형적인 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승천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루어주시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도 성취해 주실 때까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주현동 성당 주임신부>

□ 제 6대 교구장 작파



환 영 사

존경하올 박 정일 주교님 !

저는 교구 7만 평신도를 대표하여 주교님의 작파에 충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느 바와 같이 이곳은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 교구’로서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고 특히 처절하였던 선조들의 순교사에 벽찬 긍지를 느끼며 살아온 교구입니다.

우리 교구가 자리잡은 전라북도는 예술적 창의와 정서적 조화를 전통적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근대적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낙후성과 인습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질서가 깊은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교회적 인습과 보수적 세계관 속에 침체되어 있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학문수련과 탁월하신 사목경험을 지니신 새 주교님께서 순교와 자치를 자랑하는 전주교구의 중흥사업에 선도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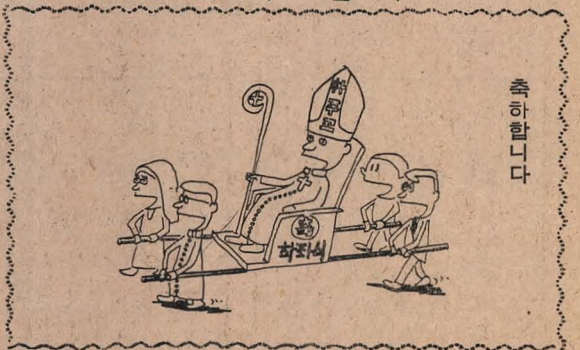
공공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는 이 고장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불어넣는 일, 새로운 가치체계를 정립하여 정신적 위기를 중식시키는 일, 그리고 바티칸 공의회가 구상하는 새로운 모습의 교회를 건설하는 일들이 주교님을 모시고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7만 평신도의 주교님께 대한 절대적 순명을 서약하면서 그리고 주교님이 펼치실 새로운 사목의 세계에 부응 기대를 품으면서 환영의 말씀을 마치렵니다.

1982년 8월 10일

교구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 회장 양 상렬

숲 정 이 산책



□ 제 6대 교구장 착좌식

취 임 사 (요약)

1. 공경하옵 주한 교황대사님, 제위 주교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주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 저의 전주교구장 취임에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심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 불초 저는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교황 성하의 명을 받들어, 제 6대 전주교구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맡게되는 중책을 생각할 때에 학덕의 부족을 통감하는 저는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여러분의 애호 편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3. 저는 오늘 6년 동안 정든 저의 초임지인 제주교구를 떠나는 아쉬움을 마음 한 구석에 간직하면서도 오늘부터 전통 깊고 자랑스러운 전주교구에 몸 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주교구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다져진 믿음의 고장이며, 그 전통에 손색없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방인교구로서 즐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구입니다.

4. 친애하는 전주교구 교형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전주교구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향해 나아가갈 공동목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구가 진실로 "사회안에 현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 교회는 세상에 파견되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사회를 복음화 함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져 있어서는 그 중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회 안에 현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일에 참여하며,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의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슬픔과 번뇌'를 같이 느끼며(사묵 1)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 지난 5월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회는 "인간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 속에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정치, 문화, 예술, 산업, 상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책임"이 평신도들에게 있으며 "겨레의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부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7. 교회가 사회 안에 효율적으로 현존하기 위하여 교회는 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8. 사회 안에 현존하는 교회에게 첫째로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정진자세인데 저는 그것을 순교자의 영성, 다시 말해서 철저한 순교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장은 자랑스러운 순교의 터전이요 우리는 그 순

교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이어받은 후손들입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용감히 목숨을 바쳤듯이 오늘 우리들도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헌연히 감수하는 순교정신을 몸에 지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9. 사회 안에 현존하는 교회의 자세로서 두번째로 꼽혀야 할 것은 자기색신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겸손되어 자신의 잘못을 뒤우치고 쇠신하면서 사회의 평화와 복음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0. 세번째로 교회는 시대의 표징과 사람들의 필요를 재빨리 파악하는 감수성을 짚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교회의 모든(사묵) 활동은 공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클 것입니다.

11. 그런 뜻에서 오늘날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과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 때에 그것은 밝기보다는 어둡고 희망적이기 보다는 절망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2.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과연 이러한 징표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 구원과 복음화를 위하여 손길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교회가 겨레의 구원을 떠맡고 나선지 200년이 되는 때로써 우리는 내적으로 과감한 쇠신을 이룩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입니다.

13. 지금까지 저는 교회가 사회 안에 현존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세 몇 가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일일이 언급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 친애하는 전주교구 교형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전주 교구장으로 취임하는 이 성대한 자리에서 우리의 공동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성의있는 협력을 구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성직자 여러분! 우리들의 사목활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들간의 사랑의 일치와 공동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교구내 수도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봄으로 참다운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적 덕을 살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전주교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회 안에서 교회를 보여주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15.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2. 8. 10 전주교구장 박정일 주교

고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조 (안토니오)선
박 (가브리엘)옹 이
안내합니다

주단 · 포묵(훈수 · 획갑옷
감)도매상
각종 숯, 이불(밍크)카펫지
도매상

서 울 주 단

전 화 ③ 0 4 5 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교우의 식당

味 滿 회 관

(舊. 쇠꼬리탕 집)

단체 · 연회석 · 냉난방 완비

정성을 다해 양식껏 모시겠습니다.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북은행 후문 앞, 협성아카데미트윗집

전화 ② 9 3 0 1 김기봉(배남시오)



□ 제6대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 착좌

8월 10일 윤정이 해성 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는 박 정일 주교님의 착좌식이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전국에서 오신 16분의 주교님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내외 귀빈 1천5백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MBC, KBS 카메라의 환한 빛이 번쩍이는 속에서 식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개식선언, 국민의례, 개식사, 박 정일 주교님 약력 소개, 교황 칙서 낭독, 신임 교구장 착좌, 꽃다발 증정, 순명 서약, 취임사, 복자 찬가, 교황 대사님 치사, 축사, 주교단 강복, 폐식선언으로 식을 끝냈다.

교황 대사는 치사를 통해 뜻깊은 이 순간 교구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새 목자이신 박 주교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길 당부하시면서 그럴 때라야만 주교직은 사제직과 신자의 생생한 상징이 되고 공동체적 유대를 분명히 들어낼 것이며 전세계와 교구사이의 친밀한 친교를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한편 교구에서는 이날 오늘의 복잡한 정치상황과 교회활동을 억압하는 당국 시책으로 인하여 불가불 이 뜻 깊은 자리에 도 단위 기관장들을 한 분도 모시지 못한 유례없는 선례를 남겨 더욱 시대적 의미를 새기게도 했다.

□ 대학생 도보 성지 순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진산에서부터 전주까지(64km) 약 230명(대전 90, 광주 50, 전주 90)의 대학생들이 이색적인 도보 행진을 했다. 이 행렬은 산을 넘기도 했고, 먼지가 자욱한 비포장도로의 그늘 한점없는 폭염 속을 지나기도 했고, 주룩주룩 내리는 폭우 속을 걸기도 했다. 침묵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가를 부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길고 긴 이 순례의 의미를 몸과 마음으로 새겨보았다. 이 길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였던 윤 지창이 형장으로 끌려가던 길로서 오늘 이 길을 걸음은 신앙 안에서 윤 지창이라는 한 구체적 인물을 통해 사대주의에 대한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의 뿌리를 찾으려는 것이요. 근세사 안에서 윤 지창이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과 신앙 안에서 박해를 이겨낸 것이 과연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본 것이다. 윤 지창은 인생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랑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스승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다. 오늘 학생들도 힘들고, 지겹고, 지루하고, 무덤고, 목이 타는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내만이 이 길을 끝까지 견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마음 안에 맑게 고여오는 것은 모든 형제 자매들을 꼭 껴안아 주고 싶은 일체감이었다. 아마 이들이 참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하게 될 때에도 똑같은 기쁨이 더할 수 없이 이들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 여름방학 성경, 교리학교 및 수련회

교구내 모든 본당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주일학교, 연수회, 수련회를 각 본당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마련하였다. 교구내 39개본당 가운데 34개 본당이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12개 본당이 중·고생을 위한 특별 교리교육을, 31개 본당이 중·고생 수련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전동과 월명동은 아동 수련회를 또한 전동은 대학생 수련회를 가졌다. 뜨거운 피약벌에 알알이 곡식이 영글듯 우리 영혼도 하느님의 말씀과 교리로 살찌우고 수련회를 통해 성격도, 기호도, 습관도 다른 형제, 자매들과 친식을 함께 하는 공동생활의 즐거움과 어려움도 체험하였다. 자연과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이 기회에 창조주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고, 물놀이로 시원한 여름을 즐기기도 했다. 올 여름 당신의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흐뭇한 표정을 지으실 듯하다.

요심이 (471) 김병오



의료 효과의 선구자!

神秘食品, 土龍

(각종 간(肝)질환에 특효)

성모 土龍 쉐타

(聖 베네딕도 수도원 제조)

전북총판: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②8091

정읍영업소: 정주시 전화국앞

전화 6372

김 미 카 엘

□ 땀 제거(독일수입품)
하 이 도 난
□ 사마귀 제거
베 루 말
전주 시민 약국
전화 4-0009
3-3338
중앙시장 입구
약사 김병의(벨로마)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어
전화 ②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덕배)

금·은·보석·고급시계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저거)
전주 남문열(대지탕 입구)
전화 ②4989(사구원구)

나들이 미용실
김 속 자(셀비아)
이리시 창인동 1가 118
(중앙시장 사거리)
※ 급구 미용사(신자우매)
전화 ②7930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상관성당 당당 축성식 : 22일 오전 10시 30분(개별초청 생략)
2. 축! 순정이 성당 축성식 및 이 바오로 신부님 회갑 : 19일(목) 오후 2시, 순정이 성당
3. 레지오 마리아 연구회 개최 : 15일 오후 1시~6시, 장소-전동성당, 대상-쿠리아 간부 전원, 지도-한국 세나투스 간부 3명
4. 전화 증설 : 순창분당 동계공소(동계 258번) 많은 이용 바랍니다
5. 센타 예비자교리 개화 : 6반(김 용태 신부 지도), 18일(수) 오후 7시 30분
6.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 22일 각 분당 중·고생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7. 500호 기념집 발간 : 구입하실 분은 분당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장, 400면, 8월10일 발행)
8. 축! 영명 : 20일-성 베르나르도, 소 순형 신부님 축하와 기도를 드립니다.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 ※ 성경읽기 : 에제키엘 24~36장, 집회서 15장
1. 분당신부님 영명축일 : 8월 24일(화)은 분당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불철주야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신부님께 정성껏 영육간에 기도와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모회 : 공식미사 후 강당
 3. 착한 사마리아인회 : 18일 오후 2시
 4.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 22일
 5. 성전신축헌금 신입에 협조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광섬(1백만원), 전인자(5십만원), 임익도(1백5십만원), 신동진(3십만원), 이정필(10만원),
합계 : 76,568,000원
- 지난주 봉헌금 : 640,600원 교무금 : 457,0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정원
수.사 ⑥7032 보좌 신부 박정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축! 첫 영성체식 : 오늘 오후 3시미사중에
 2. 예비자 교리안내 :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목) 저녁미사 후
 3. 교무금 납부의 날 :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날입니다 신자의 의무를 저버리지 맙시다
 4.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유다서와 묵시록 전체
 5.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6. 켄모임 : 매주(토) 오후 5시, 미사-매주(일)오전 9시
 7. 1일 찾집 개점 : 대화의 자리, 많이 이용합니다
 8. 대학생 모임 : 매주(금)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311,710원 교무금 : 163,000원

(덕진)

전화 ⑥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성모회 월례회 : 할머니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 애령회 회사금 : 오 요한씨 형제 감사합니다
 3. 주일학교 방학 : 교리는 없습니다. 미사-3시
 4. 예비자 교리 접수 : 오늘부터 1세대 1인 인도서약서 봉헌 바람
 5. 첫 영성체 : 어린이 38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 레지오 마리아에 가입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466,440원

(복자)

전화 ⑥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모 승천대축일
 2.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 22일 다음주일, 중·고 모든 학생들은 교리경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봉헌금 미수금 완납 바람 : 분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읍니다
 4. 금반지 분실하신 분은 신부님께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5. 차주전례 : 해설-은희영, 독서-①이상인 ② 송루시아
- 지난주 봉헌금 : 356,210원

(서화동)

전화 ⑥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할머니회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2. 중·고생 특별 하계교리 : 16일~21일 오후 5시 지도-한병현 신학생 많은 참석 바람
 3. 시화전 : 일시-14일~24일까지, 장소-본당 강당
 4. 폐품 수집 : 빈병, 신문지, 양은 신자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5. 소록도 나환자촌 위문 : 내일(월) 오전 5시30분에 성당에서 출발, 시간엄수 바람
 6. 자모회 임원 : 회장-윤데레사(정순), 부회장-조루시아(귀례), 총무-이혜레나(정민)수고하시겠습니다
 7. 차주전례 : 독서-①김나설 ②김낙균
- 지난주 봉헌금 : 229,000원 교무금 : 134,500원

(순정이)

전화 ⑥373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축! 낙성식 및 이 대권(바오로) 신부님의 회갑식 19일 오후 2시
 2. 성모회 월례회 : 15일 공식미사 후
 3. 중·고등학생 특별교리 : 매일 오후 6시(교재 한국천주교회사)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성가연습 : 매일 저녁 8시, 남·여대학생 및 고등학생 참석하여 낙성식 미사 성가 배울시다
 5. 차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①박병열 ②이종상
기대-이철수
 6. 미사참례자 안내 : 김철숙, 신순영, 김유리안나, 문영희, 권춘자, 최옥주
- 지난주 봉헌금 : 374,04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준
사.무 ⑥3222 보좌 신부 박영문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축! 성모 등소승천 : 사대축일중의 하나, 단체 구역 별로 기념 배구대회가 있음(공식미사 후)
 2. 성화회 : 공식미사 후
 3. 꼬미시움 : 오늘 오후 1시~6시, 파티마의 모후 꼬미시움 제25주년 기념연구회, 참가-쿠리아 간부 전원
 4. 하계교리 : 협조해주신 자모님, 일일간식 부단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주일학교 : 방학동안 교리없이 오후 3시 미사만 있음
 6. 첫 영성체 : 공식미사중에 있음
 7. 차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중구, 독서-①이현재 ②최병래
공식미사 : 해설-서정옥, 독서-①김병오 ②안득수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종호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 507,450원

(파티마)

신부 ⑥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⑥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오늘은 성모님의 대축일 : 성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2. 복사단 단합대회 : 16일 예정, 복사단과 교리교사들 앞으로 모미사 희망자들은 당일 9시까지 성당에 모여 주심시오(창조-남원 욱모정)
 3. 어린이 첫 영성체 : 부모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잘 마쳤읍니다. 폭서 속에서 수녀님을 수고하셨습니다
 4. 중·고생 교리시련 : 22일, 매일 교리공부가 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람
 5. 금주전례 : 미사해설-문요셉, 독서-①황사베리오 ②김안나(부녀분과위원장)
 6. 순정이 500호 기념집 발간 : 필요하신 분은 오늘 저녁미사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86,925원 교무금 : 77,000원